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시·공간적 특성

박순호* · 김은숙**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현실속에서 취업주부는 사적·공적 영역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사 및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본 다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의 생애주기와 자녀와의 결합제약을 고려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전형적인 세대를 선정하여 세대 및 개인 속성과 관련하여 미시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은 업무활동과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출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업무가 있는 날에는 직장주변이나 거주지 중심, 업무가 없는 날에는 거주지 중심 또는 친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거주지 주변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업주부보다는 비교적 먼거리까지 활동이 이루어지나, 대체적으로 거주지 지향적 활동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직주간 거리 및 보육시설 입지 등과 같은 공간적 사상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단어 : 취업주부, 일상생활, 시간지리학, 사회공간변증법

* 경북대학교 Post-Doc.

** 日本金澤大學博士課程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일상생활세계는 세대를 거쳐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인간생활의 삶의 기반이자 반영상이며,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이론과 실천이 지향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그러나 모든 '사건' 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형성되기에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없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박재환, 1994).

일상생활은 개인과 그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시간과의 상호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공간과 시간을 변형시키면서 형성된다(Pred, 1977, 1979; 高橋伸夫·中村理惠, 1993). 따라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공간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연구할 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본질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회구조가 어떻게 개별인간에게 내면화되고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또한 이렇게 재현된 공간적 형태가 다시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최근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되고 있다.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취업주부들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고가 뿌리깊게 내재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적·사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은 시설물 배치 즉, 직주간 거리나 보육시설 입지 등의 공간적 사상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제약하에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주부들의 일상생활활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떠한 제약하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사회적 맥락안에서 구체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일상생활세계는 시·공간적인 영역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크게 통행

조사방법³⁾과 활동일지방법⁴⁾의 두 가지로 대표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각각의 조사방법이 가지는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도시의 생활활동을 조사할 때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하며 거의 같은 시기에 사람들의 활동을 조사해야된다는 두 가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그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속성과 지역 혹은 가장 바람직한 조사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神谷浩夫, 이철우 역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기때문에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의 66%⁵⁾를 차지하여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세 부문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거주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활동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거주지를 선별하여 일찍부터 대구의 시가지로서 위치하고 있는 도시내부지역인 구시가지와 최근에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신시가지 거주자로 구분하였다.⁶⁾ 셋째,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인 능력, 가치관·취향의 차이가 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어 취업주부의 연령을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서 취업주부들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취학여부가 그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어 막내

-
- 3) 통행 조사방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동의 출발지나 도착지, 이동수단, 이동의 목적, 출발지 시설의 속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여기서 얻어진 자료는 교통계획이나 시설의 최적입지 선정 등에 사용된다. 이 조사방법은 자택내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얻을 수 없는 반면에 기입된 이동지의 종류나 목적으로 어느정도 파악할 수는 있으며 기입시의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다(神谷浩夫, 1989, pp. 62~76).
 - 4) 활동일지방법은 자택내·외에 관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1일의 모든 활동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시간, 장소, 내용, 함께 동행한 사람 등을 기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1일의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피조사자의 부담이 대단히 크고 조사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완전한 회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荒井良雄·岡本耕平·神谷浩夫·川口太郎, 1996, pp. 33~34).
 - 5)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통계연보, pp. 178~179.
 - 6) 구시가지는 1970년대에 이미 형성된 시가지를 의미하며 해당지역은 중구 전체, 남구 봉덕동·대명동, 서구 비산동·평리동, 북구 칠성동·대현동, 동구의 신암동, 수성구의 수성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지산동과 범물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두 지역은 198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수성동아백화점등이나 유흥시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과 부속상업시설등으로 구성되어 대구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기간 급속하게 도시화된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전, 초등학교 재학, 중등학교 재학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stage)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⁷⁾하였다.

설문지는 세대구성의 특성, 소득,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인 속성과 특히 취업주부 본인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본인의 소득, 이전의 직업경력, 취업시간 동안의 자녀양육 상황 등의 문항과 함께 활동일지란에는 수행한 모든 활동과 이때 동반했던 사람에 관해 15분 간격으로 기록하게 하고, 이동기록란에는 이동교통수단과 이동장소의 위치, 이동에 소요된 시간, 이동장소에서의 활동내용 등을 기입하게 하는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지 기입에 사용되는 방법은 회상법 A(Recall Method A), 회상법 B(Recall Method B), 일기법(Diary method), 그리고 게임법(Game method)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기법⁸⁾을 이용하여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의 활동내용들을 기입하게 했다. 설문조사기간은 1997년 6월 10일~8월 18일까지였으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조사를 위한 전단계로서 63세대의 설문지를 획득했다. 설문지 기입방법에서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법을 채택했기에 기재된 활동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따라서 먼저 생활활동을 분류⁹⁾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가운

7) 가족의 생애주기는 결혼에서 시작하여 부부 모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겪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구분지음으로 해서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도구(이현승,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제30집 겨울호, 1996, p. 760)로서, 본 연구에서는 A세대: 막내자녀 연령 0~3세, B세대: 막내자녀연령 4세~초등학교 입학전, C세대: 막내자녀연령 초·중학생, D세대: 막내자녀연령 고교생 이상으로 분류하였다(김은숙, 1997).

8) 일기법은 시간수지(time budget)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입양식의 자율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날 동안 수행한 각각의 활동을 기입하게 한다. 이 방법은 적은 샘플수로도 충분하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기록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세밀함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Parks, D. and Thrift, N., 1980, pp. 158~160.; Carlstein, T., Parkes D. and Thrift, N., 1978, pp. 231~232).

9) 생활활동에 대한 분류는 시간수지연구(time-budget study)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가운데 활동의 분류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Szalai(1972)의 활동분류와 KBS의 활동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무활동, 가사활동, 구매활동, 자녀양육활동, 생리적 활동, 업무이동, 비업무이동, 학습 및 참가활동, 여가활동의 9개로 분류하였다

활동분류에 따르면 업무활동에는 주업무·부업·업무중 휴식, 가사활동에는 요리·청소·세탁·집안업무·주택수선, 구매활동에는 일용품구입·쇼핑, 자녀양육에는 기본적인 자녀보살핌·자녀상대, 생리적 활동에는 기본적인 필수시간·식사·수면, 업무이동에는 통근, 비업무

데 특히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자 외출활동을 다시 분류¹⁰⁾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설문지를 검토해본 결과, 취업주부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육아조력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취학전 자녀의 자택내 풀타임보육을 통해 외출활동에 있어서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킨 세대이다. 두 번째 유형은 출·퇴근을 전후로 취학전 자녀를 근거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세대이고, 세 번째 유형은 근거리위탁보육과 원거리위탁보육을 병행하는 세대로, 두명의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가능한 연령의 자녀는 근거리 보육시설에 그리고 보육시설에 위탁이 어려운 자녀는 원거리에 위치한 조부모에게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세대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의 결합제약에 의한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결혼이후의 재취업 사례가 나타나는 세대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일상생활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해석의 틀로써 사용하고자 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취업주부 일상생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화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세계로서의 일상생활을 고찰하기에는 3장에서 논한 일반적인 경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특성이 두드러지는 유형을 선정하여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그리고 공간과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동향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먼저 현상학적 관점

이동에는 개인적인 이동·여가의 이동, 학습 및 참가활동에는 학습·종교·조직, 여가활동에는 라디오·TV·신문·잡지·책·영화·사교·대화·활동적인 스포츠·낚시·하이킹·산보·오락·문화행사·휴식·그외의 여가가 포함된다(김은숙, 1997).

- 10) 荒井良雄·岡本耕平·神谷浩夫·川口太郎(1996)의 외출활동 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무활동, 구매활동, 업무이동, 비업무이동, 학습 및 참가활동, 여가활동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김은숙, 1997).

에서 후설(Husserl, 1962)은 일상생활세계가 모든 논리이자 모든 학문의 의미토대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세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후설(Husserl)의 논의를 계승한 슈츠(Schutz, 1973)는 일상생활세계를 먼저 상식세계, 일의 세계, 사회세계로 분류한 다음, 다양한 세계의 현실들 가운데 하나로서 일상생활세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일상생활세계를 모든 주어진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태도인 자연적 토대하에서 하나의 현실로 경험하는 세계로 규정하였으며 사적인 세계가 아닌 사회적 세계, 즉 상호주관적인 세계라고 논의(강수택 1998: 119-182)함으로써 이후의 사회적 맥락하에서의 연구필요성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은 현상학적 관점은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반면,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일상생활세계를 주목했다는 점과 그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 학자인 미드(Mead, 1962)는 자아와 사회적 환경과의 변증법적인 성격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양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회와 연관된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졌다(강수택 1998: 183-222). 이렇게 봤을때 그의 관점은 다른 이론적 관점에 비해 실용적이고 동태적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나의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다루기 보다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으로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리고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로는 르페브르(Lefebvre, 1977)를 들 수 있다. 그는 일상생활을 노동, 가정생활 혹은 사생활, 그리고 여가시간이라는 세 요소들의 통일체로서,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다룸으로써 경제환원주의에 빠졌던 교조주의적 맑시스트와 인간의 특정한 속성만을 분리시켜 파악했던 전통 철학을 비판하며, 전체적인 사회, 역사와 개인간의 일상생활을 변증법적 관계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관심을 두어 소외된 일상생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헬러(Heller, 1978)는 일상생활을,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가능성을 그때그때 창출하는 개인이 자신들의 재생산을 위해 행하는 활동들의 총체로 규정하고, 르페브르(Lefebvre)와 같이 일상생활의 소외 극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소외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의 구조적인 특징들이 경직화되어 개인에게 운동의 여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게 될 때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소외의 원인을 일상구조 자체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관계들에서 찾음으로써 이러한 관계

들의 변형을 통하여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강수택 1998: 48-118). 이러한 맑시스트 관점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추상적이고 대안 제시가 급진적이라는 면도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와의 맥락속에서 개별인간들의 일상생활을 고찰하고자 했으며, 나열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고찰이 아닌 일상생활의 소외라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학에서 철학적인 수준과 결합하여 행해져왔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어 공간과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인간의 실천을 분석하기에는 미비하였다.

지리학에서는 일상생활연구의 필수적 요소인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시간지리학적 접근방법¹¹⁾을 도입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크게 통행, 구매활동 또는 외출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창운, 1982; 조성혜, 1986; 조창현, 1994)와 일상생활의 전체상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연구는 일상생활을 이루는 특정 부분을 심도 깊게 고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일상생활 연구를 통해 개인에게 미치는 시·공간적 제약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연구가 의의를 갖는다. 전체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그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특수한 계층에 중점을 둔 연구(이재하, 1985; 櫛谷圭司, 1985; 조성혜, 1995; 장희준, 1996; 西村雄一郎, 1998)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여성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레드·팜

11) 헤게스트란트(Hägestrand)는 활동의 선택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강조하며, 통계나 확률론으로 매물될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중시하였다. 기존의 지리학적 요소인 공간차원에 유한한 자원인 시간을 도입하여 인간의 연속되는 시공간적인 활동을 경로(path), 계획(project), 그리고 제약(constraint)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경로는 연속된 인간의 궤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의 규모에 따라 하루경로, 週경로, 생애경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획은 개인이나 사회가 어떠한 의사나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경로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활동은 세가지 제약에 의해 제한받게 되는데, 능력제약, 결합제약, 그리고 권위제약이다. 먼저, 능력제약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속성에 기인하는 생리적인 욕구와 개인이 이용가능한 도구 및 기술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며 공간적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합 제약은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 어느 기간만큼 다른 개별인간들과 결합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경로의 패턴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권위제약은 능력제약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활동가능한 시·공간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또는 개인적 권위 등으로 인해 특정한 시공간영역에 대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더 이상의 내용은 김은숙, 1997 참조바람).

(Pred·Palm, 1978)은 어린 자녀가 있는 독신모·기혼여성, 10대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과 자가용이 없는 교외의 주부를 선정하여 업무나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안에서 각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구명하여 미국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사무직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간대별·시간량별·활동의 연속성·시간지리학적 개념에 따라 분석하였고(김경혜, 1985), 빈민이라는 계층적 문제와 여성문제를 결합한 빈민주부에 대한 연구(이선희, 1987)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Forer·Kivell, 1981; 이창운, 1982; 김미형, 1983; 神谷浩夫, 1987; 김송미, 1997)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들을 단순히 집계량으로 파악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연구대상의 성격이 복잡적이어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공적·사적 영역에서 가지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유무 및 연령, 자가용의 이용가능성, 세대구성과 가족의 역할분담 등을 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神谷浩夫·岡本耕平·荒井良雄·川口太郎, 1990)와 대도시교외에 거주하는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활동과 시간배분 및 1일 전체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시간과 통행(trip)에 대한 연구(神谷浩夫, 1993a)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자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활동을 조사하여 집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만 선정하여 상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큰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자녀보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시설의 배치문제를 고찰한 연구(神谷浩夫, 1993)와 세대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의 업무 및 육아의 형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보육대상인 어린이의 성장에 맞는 보육시설과 지역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마르텐선(Mårtensson, 1977)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총체적이고 집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상생활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잘 고찰하려면 기존의 집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전체를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개별세대와의 관련지어 고찰하기 위해서(神谷浩夫 外, 1990)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다음, 일반화로 인해 매몰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개인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3. 취업주부 일상생활활동의 일반적 경향

지금까지 일상생활활동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경향을 살펴보고,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절에서 살펴볼 유형별 사례의 특수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부에 대한 연구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는 뒤에서 살펴보고자 하기에 먼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상생활활동의 구성면에서 평일과 토요일은 주로 집안에서 보내면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그 전후 2시간씩 즉, 10:00-12:00, 14:00-16:00 사이에 이웃들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외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간대에 외출활동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가족의 등교·출근을 도와주고 어느 정도의 가사활동을 하고 난 후의 시간대이면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한 귀가시간대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창운, 1982; 이선희, 1987). 일요일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반면, 특히 가사활동보다 외출여가가 두드러지는데(김송미, 1997) 이는 일요일에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으로 가사활동의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가 있는 주부는 외출시에 유아자신의 능력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유아가 없는 주부에 비해 친지집 방문 등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이창운, 1982) 주부의 일상생활은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외출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 대부분의 주부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외출활동이 중심을 이루고(이창운, 1982; 神谷浩夫, 1987; 이선희, 1987; 김송미, 1997)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도보와 버스다(이선희 1987). 그러나 휴일에는 비교적 먼거리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평일에 비해 종교활동과 친지집 방문, 외출여가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창운, 1982). 이상과 같이 주부 가운데 특히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활동을 살펴본 결과,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지향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중심의 단거리 외출활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주부의 거주지 중심의 외출활동패턴의 원인

을 자녀양육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가정에 대한 책임과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거리 극복, 그리고 거주지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의 배치 등을 거론하고 있어 공간적 요인이 생활활동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송미, 1997). 또한 취업여부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부 일반에 대한 연구보다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활동구성면에서, 평일에는 퇴근후 방문·교제활동이 미약하게 이루어질 뿐 사회·문화생활은 전혀 없으며 20:00-21:00의 시간대에 가사노동의 비율이 높고 이후에는 가내여가활동이 나타난다. 일요일은 9:00~11:00와 17:00~19:00시간대가 가사노동의 주활동이 되고 있어 수면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평일에 비해서 각 시간대별로 특별히 집중적인 활동이 없이 다양하다. 이는 평일의 근무시간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일요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김경혜, 1985). 토요일은 오전의 공무후 오후에 사적인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토요일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김송미, 1997) 생활활동면에서 오전 시간대는 평일과, 오후는 일요일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김은숙, 1997).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 구성은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神谷浩夫, 1993a) 극히 단조롭고 주기적인 규칙성을 나타낸다. 한편, 파트타임·풀타임의 고용형태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요일별 활동의 시간배분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일상생활을 노동, 가정생활, 그리고 여가의 총체로 인식한 르페브르(Lefebvre)의 개념 중 노동 부문만이 강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소외문제 대두와 취업주부가 가지는 이중역할에 의한 부담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외출활동의 구성과 패턴에서 보면 평일과 토요일에는 구매활동이 퇴근 이후에 수행되는 다목적 통행을 통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김경혜, 1985; 이선희, 1987; 김송미, 1997; 김은숙, 1997) 대표적인 외출활동유형은 <집 → 직장 → 집>의 통행이 지배적이다(김송미, 1997). 그러나 취학전 아동이 있는 주부의 경우에는 출근과 퇴근을 전후로 탁아를 위한 통행이 일어나는 <집 → 자녀양육 → 직장 → 자녀양육 → 집>의 통행이 나타나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활동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혜, 1985; 김은숙, 1997). 특히 유아원 입학전의 3세 이하인 자녀는 세세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제 육아가 아닌 풀타임 육아가 요구되나 자녀양육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 다시 찾아가거나(김경혜, 1985) 심지어 원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맡겨두고 주말 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에서 언급한 시설배치 및 관리면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육아휴직기간 설정에 있어서의 비합리성¹²⁾과 자녀육아를 위해 한번 퇴직할 경우 겪게 되는 재취업시의 어려움¹³⁾에 기인한다(김은숙, 1997). 업무활동을 제외한 외출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업무가 있는 날에는 직장 주변이나 거주지 중심, 업무가 없는 날에는 거주지 중심 또는 친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전업주부보다는 비교적 먼거리까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거주지 지향적 활동공간의 특성을 가진다(神谷浩夫, 1993a; 김은숙, 1997). 이러한 거주지 지향적 활동은 자녀양육활동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녀위탁의 대부분이 거주지 주변의 친척에게 위탁하기 때문이며, 주말의 친척집 방문도 이러한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한 통행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직주간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취업주부의 직장은 남편에 비해 집 가까이 위치한다는 점과 남편은 자가용을, 본인은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모든 직주관계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이다(神谷浩夫, 1990, 1993a; Gordon, Kumar, and Richardson, 1989, 심기정, 1992에서 재인용; 노시학·손종아, 1993; Madden 1981, Hanson·Johnston 1985, Mclafferty·Preston, 1991을 진중현, 1994에서 재인용; 진중현, 1994; Hanson·Johnson, 1985을 有留順子·小方 登, 1997에서 재인용; 有留順子·小

12) 현행 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상시 5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여성에게만 인정됨으로서 전통적인 성별역할의식을 유지·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전일휴직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는 무급으로, 사업주는 대체 노동력을 고용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인해 노사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기업가층의 여성 고용 기피 가능성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육아 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993, pp. 160~178).

13) 재취업이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취업여성중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되는 비율은 극히 낮으며, 대부분이 임시고용이나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재취업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1996, pp. 23~59).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가운데에도 결혼전에는 풀타임고용의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결혼으로 인해 파트타임고용으로, 지금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즉, 결혼전과 자녀출산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판매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세대가 본 분석대상자의 14%를 차지한다(김은숙, 1997).

方 登, 1997; 김은숙, 1997). 그러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길다는 의견(Hanson · Johnson, 1985을 有留順子 · 小方 登, 1997에서 재인용)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거주지 지향적인 직장 선택으로 인해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거주지 주변의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의 통근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어 온 것이 여성의 취업상의 지위 내지는 수입, 여성의 가정에 대한 책임,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거주패턴, 고용지의 패턴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다(神谷浩夫, 1990; Hodge, 1990; Hanson · Pratt, 1988을 노시학 · 손종아 1993에서 재인용; 有留順子 · 小方 登, 1997). 그러나 기혼여성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여성을 가정에 근접한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기존의 인식이 반드시 제1요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며(Hanson · Johnson, 1985을 吉田容子, 1993에서 재인용), 취업주부 가운데에서도 고임금 · 전문직인 경우에는 긴 통근거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직종이나 고용패턴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Rose · Villeneuve, 1988을 진종현, 1994에서 재인용). 또한 가사부담으로 인해 거주지 주변의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의 직장보다는 여성의 직장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의 직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Singell & Lillydahl 1986을 吉田容子 1993, 재인용; 노시학 · 손종아, 1993; 진종현, 1994; 김은숙, 1997) 가사부담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취학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과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거주지 및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Pred · Palm, 197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를 위해 퇴직한 후 재취업시의 어려움과 재취업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직업보다 낮은 직종으로 취업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의 선택이 우선시되며 취업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자녀위탁 역시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과 자녀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식으로 인해 보육시설과의 근접성보다는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조부모와 친척이 있는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인근의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줄 수 없을 경우에도 원거리의 친척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김은숙, 1997).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지금까지도 증가하는 추세였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

저 특정 계층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나 세대수준의 문제로 취급되어선 안되고 보육의 실제적인 대상이 되는 어린이가 받게 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사회 하부구조 정비나 복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주부와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주요 특징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개별사례에 대한 사회·경제적 속성과 여러 가지 맥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 장에서는 개별적 사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일상생활활동의 비교

		주 부	취 업 주 부
중심 활동	평 일	가사활동	업무활동
	토 요 일	가사활동	업무활동 / 가사활동
	일 요 일	여가활동	가사활동
외출 활동	시 간	10:00 - 12:00 14:00 - 16:00	퇴근이후
	장 소	업무있는날 거주지 주변	직장주변 / 거주지 주변
			거주지 주변 / 기타
	업무없는날		
패 턴	집→여가활동→집	집→업무활동→집 집→자녀위탁→업무활동→자녀활동→집	
직주 관계	근 접 성	해당사항 없음	거주지 주변
	소요시간		단시간
	통근수단		대중교통

* 직주관계는 남편과의 비교임.

4. 일상생활활동의 유형별 시·공간적 특성

지금까지 사회적 생산노동과 가정내에서의 재생산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이 일상생활활동 공간에 어떻게 재현되며, 공간적인 요소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 공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정한 다음, 각 유형의 대표적인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점들과 결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유형선정

유형선정은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 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의 생애주기, 육아조력자의 여부 및 소재지에 주안점을 두어 분류하고자 한다. 세대별 속성과 육아조력자의 여부 및 소재지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A세대는 막내자녀 연령이 3세 이하로 많은 보살핌이 요구되나 실제적으로 보육시설 위탁에 경제적인 부담이 큰 연령대로서 전체 63세대 가운데 19세대가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육아로 인한 제약을 약화시켜줄 수 있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5세대이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동거하지는 않지만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세대로 구성되어 조부모의 존재가 육아로 인한 취업주부의 제약을 약화시켜줄 뿐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을 가능하게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중 한 세대에서만 자택내 보모를 고용한 자택내풀타임보육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세대에서 나타나는 조부모 중심의 자녀양육경향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외부인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가족내에서 자녀양육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세대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직 7명, 사무직 11명, 판매\서비스직 1명이며, 고용형태도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3명으로 고용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업경력에서도 결혼이전의 직업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4살~초등학교 입학전인 B세대는 유아원이나 놀이방 등의 위탁이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보살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부모나 친척이 보살펴주는 세대가 A세대보다는 적었고 오히

려 유아원이나 놀이방을 이용하는 세대가 A세대보다 월등히 많았다.¹⁴⁾ 그리고 본인의 직업은 전문직 3명, 사무직 9명, 판매\서비스직 4명이며, 고용형태는 풀타임 12명, 파트타임 4명으로 A세대와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2세대에서 재취업 사례가 나타났는데, 한 세대는 결혼직전에는 사무직·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결혼이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판매직·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 한 세대는 결혼이전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시에 결혼과 자녀양육이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직업의 지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세대와 D세대는 각각 20세대, 8세대이며, 자녀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A와 B세대보다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제약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세대에서 본인의 직업은 전문직 7명, 사무직 2명, 판매\서비스직 11명이고, 풀타임 15명, 파트타임 5명인데 대해, D세대는 모두 판매\서비스직이며 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직업종류가 판매\서비스직이 많고, 파트타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세대는 10명이 재취업사례가 나타나며, 사무직에서 판매직으로 이직한 경우가 7명으로 재취업시 지위하락현상이 두드러졌고, C세대에서의 나머지 3명과 D세대에서 나타나는 1명의 재취업사례는 결혼전에는 무직이다가 현재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였다. 이렇게 C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취업사례는 어느정도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져서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완화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선정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막내자녀가 취학전 연령이라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위탁이 어려워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는 A세대 가운데 육아조력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택내 보육, 근거리 보육, 원거리 보육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중에서는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가장 두드러지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D세대를 포함하여 모두 4

14)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 의하면, 6세미만 자녀를 최소한 1명 이상 가진 기혼 여성취업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6%는 취업여성 자신이, 그리고 18.0%는 시부모, 8.6%는 보육시설 내지는 유아원, 6.0%는 친정부모, 3.4%가 취업여성의 형제가 양육한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전반적인 보육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1992, pp. 97~100).

세대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세대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이들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일을 다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일상생활활동의 유형별 시·공간적 특성

(1) 취학전 자녀를 자택내에서 위탁보육하는 세대

첫 번째 사례세대는 본인(30세), 남편(33세), 자녀(3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택내에서의 보육을 위해 24시간 풀타임으로 고용된 보모(61세)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보다는 남편의 직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남편은 도보, 본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한다. 그리고 자택내에 상주하는 보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전반적으로 자녀와의 결합계약으로 인한 생활활동 공간에서의 제약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토요일은 시댁 방문, 일요일은 야외로의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는 도시근로자 맞벌이 가구의 평균소득인 227만원¹⁵⁾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총소득이 300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하며, 본인이 그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전부터 전문직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남편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녀육아로 인해 취업단절의 위기를 겪거나 다른 육아형태를 취하기보다 비교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자녀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택내풀타임육아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다른 세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볼 수 있는 평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평일은 7:00에 기상하여 30분 동안 출근준비를 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한다. 출근전 활동에서 다른 세대와 달리 가사활동이나 자녀양육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보모가 이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이나, 주된 역할은 자녀양육에 있다. 4:01~5:00 사이에는 직장 근처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는 본인의 직업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1시간 정도 업무활동을 하다가 18:45분에 귀가한 다음, 거주지 주변의 백화점에서 1시간 정도 구매활동을 하였다.

15) 통계청, 생활속의 통계, 1996, pp. 150~151.

백화점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역시 가사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자녀양육활동에 1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그림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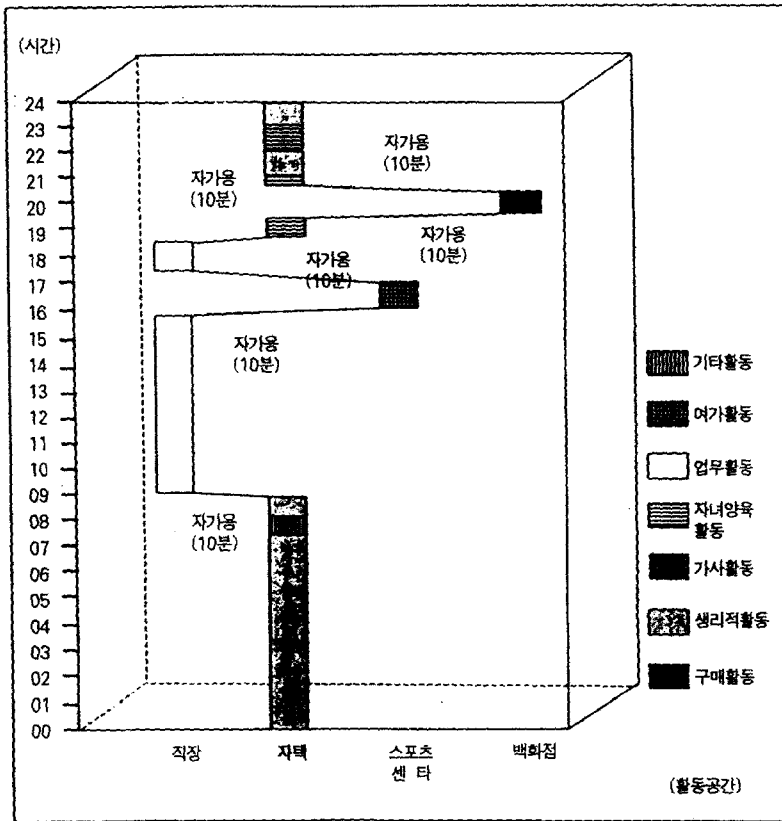


그림1. 취학전 자녀의 자택내 위탁보육 세대의 일상생활 패턴

이상과 같이 이 세대는 남편 직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주함으로써 거주지 선택과정에서 남편의 직장이 우선시된다는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가정내에서의 권력의 양상을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본인이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고용패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ose·Villeneuve, 1988을 진종헌, 1994에서 재인용). 이로써 가사나 육아로 인한 부담이 여성의 직주근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세대는 남편의 직주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통근 수단 역시 남편은 도보, 본인은 자가용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남편은 자가용, 본인은 도보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며 심지어 거리가 가까울 때조차 남편이 자가용을 이용 한다는 통근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취학전 자녀의 풀타임재택육아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여 취업주부의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자녀와의 결합계약으로 인한 외출활동공간에서의 제한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택활동에서 자녀양육활동에 1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자녀와의 결합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유형을 통해서 취학전 자녀의 유무에 못지않게 육아조력자와의 접근성 정도가 취업주부의 생활활동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취학전 자녀를 근거리에 위탁보육하는 세대

두 번째 사례세대의 가족구성은 본인(30세), 남편(36세), 자녀(2세) 3명이다. 본인과 남편 모두 직장이 거주지와 같은 구내에 위치함으로써 직주거리가 가깝고, 남편이 자가용으로 부인의 직장을 경유하여 출근함으로써 본인과 남편의 통근수단은 동일하게 나타나, 남편과의 직주간 비교는 이 세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본인은 결혼이전부터 사무직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었고, 260만원의 가구총소득의 약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 또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육아를 위해 기존의 거주지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즉, 가사와 육아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부인의 직장을 포기하거나 거주지 주변에서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고수하면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세대의 일상생활활동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평일과 토요일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으로 구성되며 12:00 이전까지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13:00에 온가족이 공원으로 나들이, 그리고 16:00에 귀가한 뒤 본인 혼자서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세대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일은 업무활동이 수행되는 평일의 생활활동공간을 설명하고자 한다.

출근하기 전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에 시간을 할애한 뒤, 남편과 함께 자가용을 이용하여 10분 거리의 언니집에 자녀를 맡긴 다음 출근한다. 그리고 9시간의 업무를 마치

고, 퇴근길에 다시 언니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다. 퇴근 이후의 시간배분은 1시간 30분 동안의 가사활동, 1시간 동안의 자녀양육이 남편의 도움없이 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취업주부들이 공간만 달리한 노동의 연속선상에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배분과 소비시간량은 가사와 육아는 당연히 여성만이 전담해야된다는 뿌리깊은 의식의 표출로 보여져 맞벌이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그림2 참고).

직장 선택에 있어서 보육소나 탁아시설의 개설시간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Pred & Palm(1978)의 연구와는 달리, 이 세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선택은 육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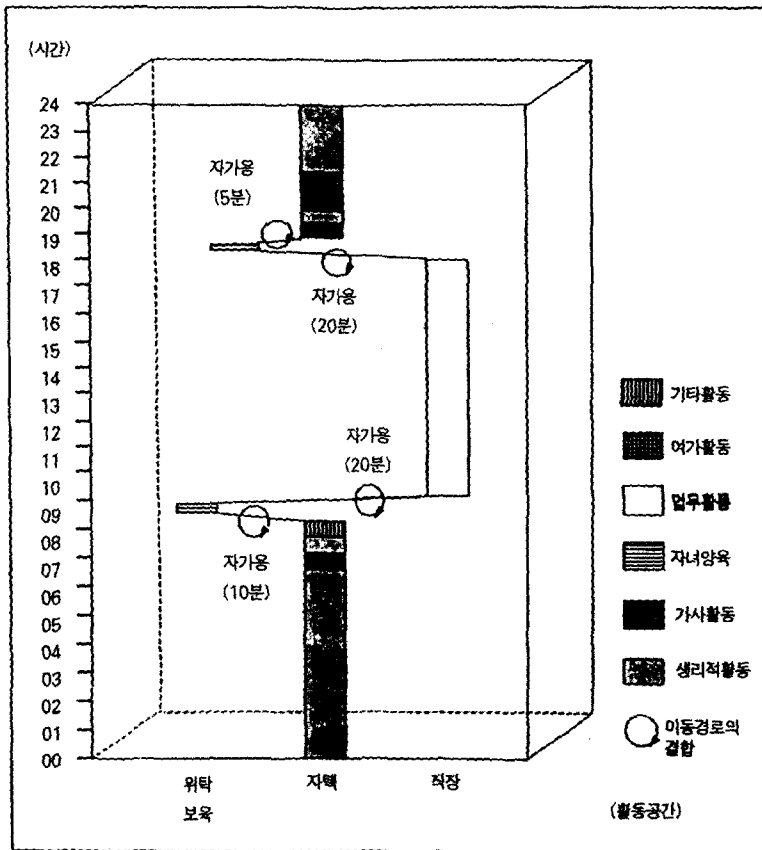


그림2. 취업주부의 근거리 위탁보육 세대의 일상생활 패턴

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단지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육아문제의 해결 여부가 주요한 원인이 되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이주하게 될 때에도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보육소나 탁아시설의 선정이 제약요인이 아니라, 육아가 가능한 조부모 또는 친척이라는 인적 관계가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가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에 따라 외부인의 손에 맡기기보다 가능하면 한 가족안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적 체계로 인해 자녀는 어머니, 조부모 또는 친척가운데에도 여성이 맡아야 된다는 의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어린이를 연령별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임정빈·정혜정, 1997), 이러한 성별분업적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취학전 자녀를 원거리에 위탁보육하는 세대

세 번째 사례세대는 본인(31세), 남편(32세), 자녀(3세·2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거주지로의 이주에 대해 “주부가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 본인의 직장근처로 이주”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취업주부 본인에게 조차도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으며, 모성이데올로기¹⁶⁾가 뿌리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직장은 도보로 10분이 소요되며 남편의 직장은 시외로 90분 정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고, 통근수단은 자가용과 통근버스를 병행하고 있어 본인이 남편보다 직주거리가 가깝고, 통근시간이 짧으며, 통근수단에서 도보와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이용된다는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남편과 본인 모두 사무직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본인은 앞의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총소득 350만원 중 약 절반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세대의 일상생활활동을 보면, 평일에는 근거리 보육이 나타나는 유형(2)와 같이 출근전에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이 수행되며 출근전

16)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성역할을 고유한 미덕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성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되는 메커니즘은 ①여성은 모성의 역할을 통해서만이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②모성역할이 여성에게 '안주인'의 권리와 지위를 제공하는 유일한 특권인양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모성의 역할이 결국 가부장적 체계의 모순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이영자, 김혜순외 4인, pp. 280~282.).

에 자녀를 위탁하고 퇴근길에 다시 자녀를 데리고 온다. 토요일에는 13:30에 퇴근하여 남편·자녀와 함께 구미의 시대에 위탁한 큰 아이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날 저녁과 일요일 오후까지의 모든 가사활동은 본인전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아이는 시대에 남겨두고 작은 아이만을 데리고 귀가한다. 이렇게 요일별 특성을 살펴봤을 때, 원거리에 소재한 육아조력자에게 자녀를 위탁보육하는 특성이 잘 드러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선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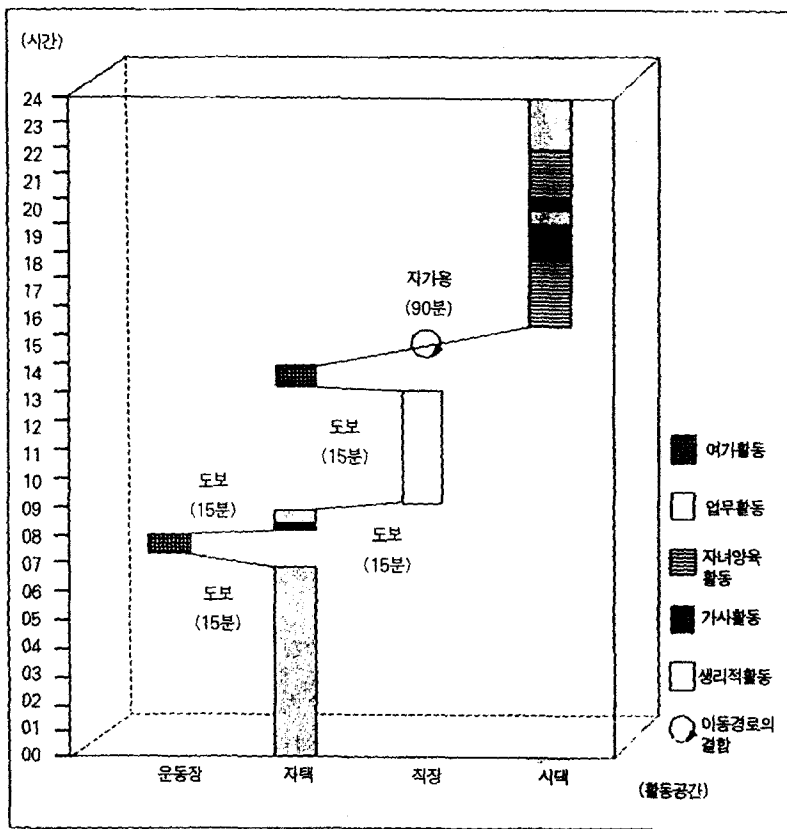


그림3. 취학전 자녀의 원거리 위탁보육세대의 일상생활활동 패턴(토요일)

토요일은 07:00에 기상하여 가족과 함께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운동장에 가서 운동겸 산책을 하고, 08:00부터 출근전까지 남편과 함께 식사준비 및 식사를 하고, 역시 도보로 출근한다. 토요일의 단축근무로 인해 4시간의 업무활동이 끝나고, 집

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1시간 30분을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큰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구미의 시택으로 이동한다. 시택에 도착해서는 식사준비 및 뒷정리의 가사활동 그리고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그림3 참고).

일요일에는 06:30에 기상해서 7:00부터 가사활동, 이어서 아침식사가 끝난 후 2시간 30분 정도를 자녀와 함께 보낸다. 그리고 점심식사준비 및 뒷정리의 가사활동이 다시 반복되고, 3시간 30분 동안의 자녀양육이 있는 뒤, 16:30에 대구의 자택으로 작은 아이만을 데리고 귀가하게 된다. 귀가후에도 역시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이 세대의 생활활동공간 및 시간배분에서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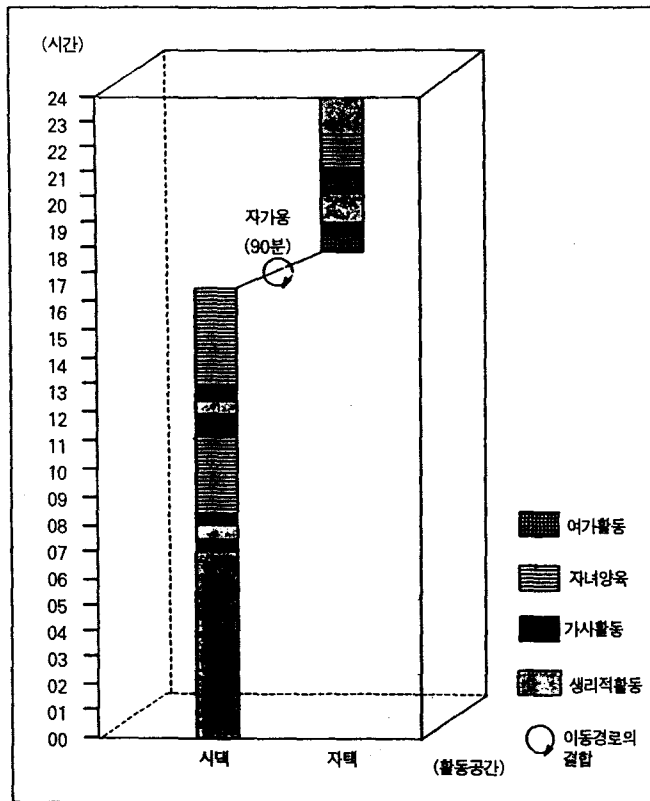


그림4. 취학전 자녀의 원거리 위탁보육세대의 일상생활 패턴(일요일)

이 세대의 특징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3세의 큰 아이는 구미에 있는 조부모에게, 2세의 작은아이는 08:30부터 18:30까지 거주지 주변의 개별가정탁아를 통해 해결하는 근·원거리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둘째아이의 탁아비용은 한달에 40만원으로 본인소득의 1/3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자녀만 전담해서 돌봐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큰 아이가 유아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조부모로부터 데리고 올 계획이라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보육시설이 연령 및 어린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같이 원거리의 조부모와 개별가정탁아를 이용하면서까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또한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자녀로 인한 제약이 악화되어 재취업을 원할 때 이전의 직업보다는 하위직의 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인해 육아를 위해 쉽게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직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활동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안정된 취업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제약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역내 보육시설 또는 직장내 탁아시설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될 뿐 아니라, 공적·사적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들에게 가부장제적인 성별분업체계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약한 세대

네 번째의 사례세대는 본인(51세), 남편(57세), 자녀(27·24·22세)로 구성된 5인 가족이다. 이 세대는 4년전에 자녀의 통학환경을 위해서 이주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두 세대와 비교할 때, 자녀양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녀위탁이 아닌 자녀의 통학환경으로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어느정도 제약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는 남편은 직업이 없고, 본인은 결혼 이후부터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가구총소득의 1/2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육아문제라고 답한 앞의 사례들과 달리 이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있어 자녀로 인한 제약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활동을 보면, 평일은 앞에서 거론한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전에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1:00부터의 업무시간은 주로 외근으로 구성되며

이때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버스이다.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집근처의 시장에 들른 후, 가사활동을 수행하며, 이후에 휴식을 취하며 주로 TV시청과 가족과 함께 한다. 본인의 직업특성상 평일에는 늘 오전 11:00에 회의가 있고 근무활동의 대부분은 외근활동으로 이루어지나, 토요일은 이러한 규정이 없기에 외근활동의 수행여부에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 조사된 이번 토요일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기에 전반적으로 재택활동이 많았고, 외출활동이라고는 5:00경 집 근처의 시장을 이용한 것 뿐이었다. 일요일은 토요일과 활동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나, 이날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따라서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완화된 것이 두드러지고, 본인의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중 결혼식 부조가 수행되는 일요일을 선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요일에는 12:00에 외출하기 전까지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버스로 1시간 정도 이동하여 결혼식장에 간다. 그리고 귀가길에 집근처의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귀가함으로써 구매활동이 다목적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집근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가한 다음에는 4시간의 장시간에 걸친 가사활동, 저녁식사, 이후에 반복되는 가사활동, 그리고 취침전까지 휴식을 취한다(그림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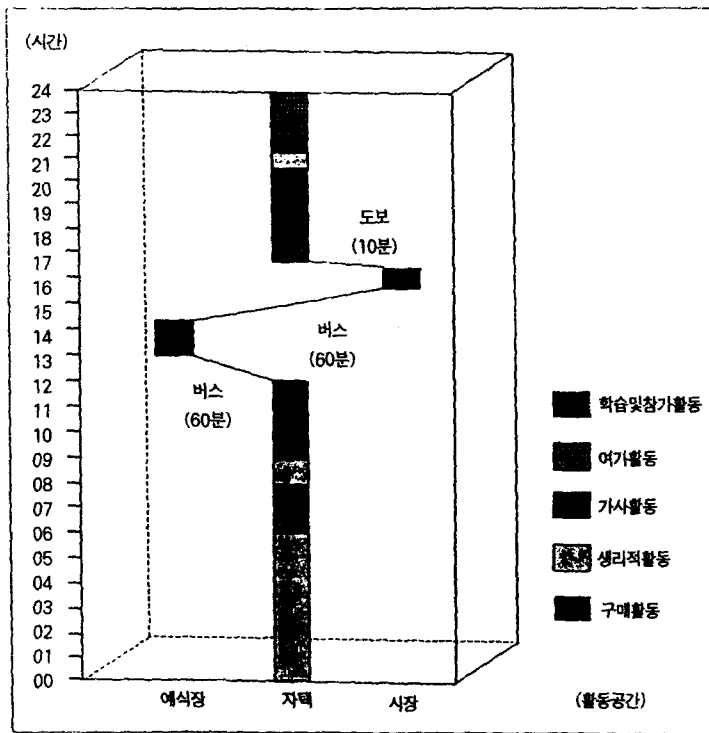


그림5. 자녀와의 결합제약이 완화된 세대의 일상생활활동 패턴(일요일)

비록 이 세대가 자녀와의 결합제약에 기인하는 활동이 생활활동공간, 이 가운데에서도 외출활동의 측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택안에서의 시간배분 및 소비시간량에서 가사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자녀가 취학 및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사활동으로 인한 제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낮은 취업상의 지위 및 저임금일 경우 통근비용을 감안하여 거주지 주변의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이 세대는 이러한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상업 및 업무지역이 밀집된 곳에 근무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거주지 선정과정에서는 자녀의 취학환경에, 직장선정과정에서는 다원화된 기능지역으로 분화되어 발달되어 온 도시공간의 특성(岡本耕平, 1996)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생애주기와 자녀와의 결합제약에 주안점을 두어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각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특성을 표2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표 2〉 유형별 일상생활활동 패턴의 비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직업 (고용형태)	직업 (고용형태)	사무직 (풀타임)	사무직 (풀타임)	판매/서비스직 (파트타임)
가구소득에 대한 본인 비율	1/2	1/3	1/2	1/2
직주 소요시간	5분(20분)	20분(20분)	10분(90분)	40분
관계 통근수단	자가용(도보)	자가용(자가용)	도보(통근버스·자가용)	버스
이주사유	남편직장과의 근접성	자녀육아	본인직장과의 근접성	자녀학교통학조건
육아조력자	자택내풀타임보육	근거리위탁보육	근거리·원거리 위탁보육 병행	없음
공간적 이동의 특성	· 자녀로 인한 외출 활동공간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음 · 직업이 가지는 시 간적 유연성에 기 인한 개인여가활동	· 출퇴근전후 의 자녀위탁 활동	· 평일: 출퇴근전후의 자녀위탁보육활동 (근거리 위탁 보육 자녀에 대해) · 주말: 퇴근후의 시대 방문(원거리 위탁 보 육 자녀에 대해)	· 예식장

* ()안은 남편의 경우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별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육아조력자와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그 제약의 경중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모습도 상이하였다. 이렇게 시·공간상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직주거리의 원근 여부와 같은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 그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메카니즘과 이것이 미치는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관적으로는 일상생활활동공간이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취업주부가 가지는 사회구조적인 제약 및 직주거리, 시설물의 배치와 개·폐원 시간 등과 같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사회적 의식이나 관습이 인간의 공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공간활동이 다시 인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의 일반적 경향을 고찰했고, 일반화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유형별 세대를 선정하여 그들의 시·공간적인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주부들의 일상생활은 사회적 생산노동과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업무활동과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업무가 있는 날은 직장 주변, 업무가 없는 날은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국지적이면서 거주지 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일상생활활동의 특성은 주부의 직업과 고용형태, 자녀의 취학여부 및 자녀가 취학전 연령일 경우에는 육아조력자의 소재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 막내자녀가 취학전 연령일 경우에는 출·퇴근을 전후로 자녀를 위탁보육하고 있었으며, 육아조력자선정에 있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조부모 → 친척 → 자택내플 타임보육 → 보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인보다는 가족내에서 육아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습과,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의 질적·양적 서비스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오랫동안 뿌리내려진 성역할이데올로기와 유교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회관습이 취업주부의 시·공간적 활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시설의 입지가 다시 그들의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직장이 남편보다 가깝고, 통근소요시간도 짧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본인의 직업종류와 입사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이후의 재취업사례에서 나타나는 판매\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직주관계의 경향을 나타냈지만, 입사시점이 결혼이전으로 전문직 또는 사무직의 안정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양한 직주관계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부분이 미시적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취업주부들은 공간만 달리한 노동의 연속선상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분위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 전통까지 결합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공공서비스 시설 등의 공간구조 역시 비합리적으로 입지함으로써 취업주부의 사회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활동공간상의 제약 완화를 위해 직장 주변 및 지역사회내에 보육시설 확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합리적인 입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개원시간대를 취업시간과 적합하게 조절하고 3세미만의 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의 개설 및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질적·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연구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반성 도출에 의해 매몰될 수 있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할 때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성 추구에만 중점을 두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주부 일상생활활동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취업주부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보다 자세한 분석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수택(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 김경혜(1985), “도시직장여성의 생활행태에 관한 시·공간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형(1983), “가정주부의 일상적 공간행동과 시간”, 경북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송미(1997), “광주시 주부의 개인속성과 일상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2(2): 217-228.
- 김은숙(1997), “취업주부 일상 생활활동의 시·공간적 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시학·손종아(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의 통근통행패턴의 차이”, 《지리학》 28(3): 227-246.
- 박재환(1994),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pp. 21~43.
- 심기정(1992), “서울시민의 통근패턴에 관한 연구:여성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28: 1-30.
- 이선희(1987), “도시빈민주부의 생활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김혜순 외(1993),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이재하(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竹坡 홍순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399-421.
- 이창운(1982), “도시활동유형에 관한 시·공간적 연구:주부의 가외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겨울): 759-777
- 임정빈·정혜정 공저(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장희준(1996), “어린이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서울시 초등학교생의 통행 자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혜(1986), “서울시민의 다목적 통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논문.
-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창현(1994), “구매행위 목적지의 시공간적 선택:서울시내 거주취업자의 평일 구매활동을 대상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 진종현(1994), "직장과 주거지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집》24: 175-196.
- 최삼룡(1988), "시간지리학에 관한 연구:도시주민의 시공간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사대 논문집》16: 187-201.
- 통계청(1996), 《생활속의 통계》
-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6 여성통계연보》
- 岡本耕平(1995) "大都市圏郊外住民の日常活動と都市のデイリーリズム", 《地理學評論》68A-1: 1-26.
- 高橋伸夫・中村理恵(1993), "筑波研究學園都市における主婦の生活行動", 《人文地理研究》XVII.: 131-187
- 西村雄一郎(1998), "自動車製造従事者の生活の時空間變化:生産プロジェクト・家族プロジェクト概念による分析", 《人文地理》50(3): 22-45.
- 神谷浩夫(1987), "名古屋市における主婦の日常活動", 《人文地理》39(6): 19-35.
- 神谷浩夫(1989), "トリブ調査の手法と結果の差異", 《經濟地理學年報》35(1): 62-76.
- 神谷浩夫(1993a), "大都市郊外における有業既婚女性の日常生活", 《研究論集》, 24(1): 235-249.
- 神谷浩夫(1993b), "名古屋市郊外日進町における保育サービス供給と住民の日常生活", 《經濟地理學年報》76: 18-35.
- 神谷浩夫, 岡本耕平, 荒井良雄, 川口太郎(1990), "長野縣下諏訪町における既婚女性の就業に関する時間地理學的分析", 《地理學評論》 63: 766-783.
- 神谷浩夫(1991), "도시일상생활의 분석시점과 과제", 이철우 역(1993), 《지리학논구》 12·13 합본체: 56-68.
- 吉田容子(1993), "女性就業に関する地理學的研究:英語圏諸國の研究動向と日本の研究課題", 《人文地理》, 45(1): 44-67.
- 有留順子・小方 登(1997), "性差からみた大都市圏における通勤パターン:大阪大都市圏を事例として", 《人文地理》, 49(1): 47-63.
- 井原哲夫(1981), 《生活様式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 櫛谷圭司(1985), "時間地理學(Time-geography)の内房漁師の行動選擇の解釋への應用", 《地理學評論》58(Ser.A)-10: 645-662.
- 荒井良雄・岡本耕平・神谷浩夫・川口太郎(1996), 《都市の空間と時間》, 古今書院.

- Carlstein, T. and Thrift, N. (1978), "Afterword: Towards a Time space structured approach to society and environment", in Carlstein, T. et al., *Timing Space & Spacing Time Vol. 2: Human Activity & Time Geography*, NY: John Wiley & Sons.
- Chapin, F. Jr. (1978), "Human time allocation in the city", in Carlstein, T., et al., *Timing Space & Spacing Time Vol. 2: Human Activity & Time Geography*, NY: John Wiley & Sons.
- Forer, P. C., and Kivell, H. (1981), "Space-time budget, public transport and spatial cho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13(4): 497-509.
- Mårtensson, S. (1977), "Childhood interaction and temporal organization", *Economic Geography* 53: 99-125.
- Parks, D. and Thrift, N. (1980), "What is the use of time?", *Times, spaces, and places: a chronogeographic perspectives*, NY: John Wiley & Sons.
- Pred, A. (1977), "The Choreography of Existence: comments on Hägerstrand's Time-Geography and usefulness", *Economic Geography*, 53: 207-221.
- Pred, A. and Palm, R. (1978), "The status of American women: a time-geographic view", Lanegran, D.A. & Palm, R. (eds). *An Invitation to Geography*, McGraw-Hill (荒井 良雄 · 川口太郎 · 岡本耕平 · 神谷浩夫 譯 (1989), 《生活の空間 都市の時間》).
- Pred, A. (1979), "The academic past through a Time-Geographic Looking Glass",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1): 175-180.

abstract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Daily Activities of economic-active married women

Soon-Ho Park, Enn-Sook Kim

Married women who follow occupations have remarkably increased. Economic-active married women(EAMW) have experienced a great degree of role conflicts as the results of that they should play the role of wage workers and do duty as household affairs as well as raise children. To understand problems of EAMW and to make alternative plans for EAMW, the daily life activities of EAMW should be examined.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activities of EAMW. To obtain the goal this research generalizes the daily life activities of EAMW, classifies the patterns the activities, and analyzes the activities in the micro-level.

The activities of EAMW mainly consist of formal business and household affairs. The spatial bounds of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weekdays and holidays. During the weekday their activities are mainly found around residences and/or work places; while, during the weekend, they are discovered around residences and/or around residences or relatives wh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EAMW move longer distance rather than a full-time housewife; however, the activities of EAMW are residential orientation like those of full-time housewives. The role conflicts of EAMW are mainly from social cultural structure, the distance between workplace and residence, and the location of public service institutes.

Key words : economic-active married woman, everyday life, time geography, socio-spatial dialectic.